

“우리 소는 무사해야 할텐데...” 인근 농가들 ‘불안’

●전남 올해 첫 소 렘피스킨 발생 ‘비상’

영암 망호리 축산농가들 잠복기 우려 속 소독 등 방역 꼼꼼 28일간 소 출하 제한...향후 7일간 발병 없으면 이동 가능

“다른 지역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지.”

18일 오전 영암군 망호리 한 축산농가. 이곳에서 사육하던 한우 두 마리가 최근 올해들어 전남에서 최초로 렘피스킨병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방역복을 입은 가족위생방역 지역본부 및 영암군 관계자들이 인근 도로에 대해 출입 통제하고 있었다. 농장 내부에서는 살처분을 위해 동원된 이동식 텐더링 시설이 감염축을 화장하고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 방역 관계자들이 분무 장비를 활용해 방역을 하느라 분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을 지나가려던 주민들은 차량을 돌려 다른 길로 우회하거나 현장 관계자한테 상황을 확인하곤 했다. 방역은 오후까지 계속됐다. 관계자들

은 고압분무기 소독 차량으로 농장 주변은 물론, 마을 진출입로로 이동하며 소독을 했고 해당 마을로 들어오는 일부 도로에는 통제 초소를 설치해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소독했다.

렘피스킨 양성 판정 농가 반경 5km는 ‘방역지역’으로 지정됐고, 지역 내 축산농가는 ‘이동 제한’으로 28일간 소 출하가 제한됐다.

하루아침에 이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망호리 축산농가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양성 판정 인근 농가들은 “혹시나 있을 감염에 대비해 분무기 등으로 축사내외에 소독제를 뿌리고 방문객은 약품이 담긴 발판을 밟고 출입하게 하는 등 자체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농장은 모기와 진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



18일 오후 영암군 관계자들이 렘피스킨병이 발생한 축산농가 인근 도로를 고압 분무기 소독 차량으로 소독하고 있다.(좌)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긴급 가족 방역을 위해 양성 판정 농가로 향하는 길목에 대한 차량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



18일 오후 영암군 관계자들이 렘피스킨병이 발생한 축산농가 인근 도로를 고압 분무기 소독 차량으로 소독하고 있다.(우)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긴급 가족 방역을 위해 양성 판정 농가로 향하는 길목에 대한 차량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 /주성학기자

지 소독약을 분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농가는 렘피스킨병의 잠복기를 우려하며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30년째 축산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조모(70대)씨는 “공기 감염은 없다고 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분무기로 축사 주변을 여러차례 소독하고 있다”며 “아

직 우리 소는 무사하지만, 잠복기가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인근 농가에서 약 1천마리 이상 소를 키우는 김형민(41)씨는 “최근 예방접종을 다 마치고 매일 기계를 통해 자체 방역에 힘쓰고 있다”며 “발병 농장과 거리가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어 “이동 제한으로 28일간 소를 출하 할 수 없어 속이 타지만 그나마 대목인 명절 기간이 아니라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위안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암군 관계자는 “발생 농가 주변 500m 내 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육안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향후 7일

간 추가 발병이 없을 시 ‘이동 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반경 5km 내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통해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렘피스킨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소를 대상으로 보강 접종을 진행하는 등 감염병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성학기자

해외직구 악용 위조 상품 밀수조직 ‘철퇴’

광주세관, 한국계 중국인 총책 등 6명 검찰 송치

MLB 운동화, 스타벅스 텀블러 등 3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밀수한 한국계 중국인 총책 등 밀수조직이 광주본부세관에 적발됐다.

18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밀수총책과 국내 수거 및 판매책, 유통 중개인 등 6명을 불잡아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위조 상품이 보관된 창고를 적발해 에르메스 운동화, 불가리 시계 등 해외 유명상표 위조 상품 500여점을 수거했으며 국내 판매책 2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 밀수조직은 위조 상품을 정상적인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해 중국으로부터 밀수했으며,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 거주 중국인 65명의 명의로 22개 주소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위조 상품을 분산 반입하는 치밀한 편승해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분산

수입하는 형태의 밀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전동휠체어 70대女 차에 치어 중태

전동휠체어를 탄 70대 여성이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5시56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앞에서 A(50대)씨가 몰던 차량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역주행하던 B(78·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면허를 소지했고,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역주행하던 B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국근기자

전남 섬 지역 외국인 선원들에 마약 공급...태국인들 ‘덜미’

야간에 소형선박 타고 접선·야산서 대마 재배

서해해경청, 매수·투약자 등 총 16명 검 송치

전남 서남부 해안 지역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구입한 외국인 선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한 A(20대)씨 등 태국 국적 외국인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해해경청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태국인 1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올해 2월5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해남, 진도 등 전남 서남부 도서 지역에서 외국인 선원들에게 합성마약 야바 또는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서지역에서 주로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인적이 드문 항포구

로 이동한 뒤 소형 선박을 타고 어선과 접선해 마약을 거래했고, 인적이 없는 섬 지역 야산에서 마약용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했다.

판매자와 구매자 구분 없이 붙잡힌 태국인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다.

해경은 지난 2월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선외기 어선을 이용해 외국인 선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약 8개월의 기나긴 잠복과 추적 끝에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약 6천회 흡연본인대 마약 3kg을 압수하기도 했다.

해경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급책과 판매책을 추적 중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섬 지역의 외국인 선원들 사이에는 필로폰, 대마, 야바 등의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양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철도노조 준법투쟁’...광주·전남 차질 없어

노조 “인력 총원 등 수용 안될때 내달 초께 무기한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8일 준법투쟁(태업)을 벌였으나, 광주·전남을 오가는 열차는 정상 운행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첫 열차부터 철도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전철 등 일부 구간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했다. 다만 KTX와 일반 열차는 모두 정상 운행하면서 광주·전남을 오가는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았다.

노조는 부족한 인력 총원, 4조 2교대 전환,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의 경우 조합원 2천600여명 가운데 기관차 승무 조합원, 열차 승무 조합원, 차량 조합원

등 970여명이 준법투쟁에 동참했다.

이들은 고속열차 정비와 관련한 문제점 등을 추가로 제기하며 전국 단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한 뒤 내달 초께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